

다산포럼

아시아 속의 한국



김 동 준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지난해 독일에 체류하는 동안 여러 곳을 방문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중 인상 깊었던 일 중의 하나는 쾰른의 ‘아시아재단(Asienstiftung)’ 연례 발표회에 참석할 일이었다. 학계, 언론계, 사회운동 관계자들이 모여 아시아 각국의 민주화 관련 현안을 놓고 토론하는 자리였다. 나는 한국 정치 상황 관련 발표를 했고, 방글라데시 노동 문제를 다루는 분과에 참석했다. 통역에 의존했기 때문에 여러 분과나 종합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를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먼 독일에서 아시아 각국 현안을 갖고서 그렇게 발표 토론회를 하고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방글라데시 분과에서는 봉제공장 건물이 무너져 노동자 1000여 명이 사망한 사

건이 주제였는데, 모 기업이 독일회사였기 때문에 독일 연방정부나 의회에 압력을 넣어 피해자 보상 및 노동 조건 개선을 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주관한 아시아재단, 그리고 이 재단과 연례 발표회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독일의 코리아협회(Korea Verband)가 모두 70~80년대 독일에서의 한국 민주화운동을 크게 지원했던 프로이텐 버그(Prof. Dr. Gunter Freudenberg)교수가 전 재산을 기탁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그가 독일 재벌가 후손이라서 재력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시아 민주주의를 위해 이런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새삼 독일이라는 나라의 힘을 느끼게 되었다. 독일에 광부나 간호사로 간 한국인과 그 후손이 3만여 명이나 된다고 하고, 그중에는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을 텐데 한국, 아시아 민주주의 지원 활동을 독일인의 후원에 의존한다는 점이 좀 마음에 걸렸다. 독일은 국가주의 전통이 매우 강할 것이라는 선입견과 달리 민간재단, NGO 등의 활동도 매우 활발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독일에는 현재 민간·공공부문을 포함

2000개 이상의 재단이 있고 정부, 개인 기업이 출연한 수십 개의 크고 작은 재단이 베를린에 있으며 독일 문제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및 세계의 공적 현안에 대한 교육 연구활동을 지원한다는 사실도 알았다. 오래전부터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남아시아 여러 나라에 막대한 개발 원조를 해 왔다. 물론 연구자들은 일본의 공격적 개발원조(ODA) 지원이 과도하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 지출된다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이미 30년대 만주 개발을 비롯한 제국 경영의 경험을 가진 일본은 그런 포석을 갖고 있으리라 짐작된다. 한편, 최근 남아시아 거의 모든 나라는 급속하게 중국 경제권으로 편입되어 가고 있지만 중국이 그 나라의 사회발전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작년 독일 행사 참가 때도 계속 생각이 맴돌았지만, 나는 아시아는 한국에게 무엇인가? 그리고 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하고 묻는다. 많은 한국 드라마, 음악 등 한류의 진출은 크게 칭찬할 만하다. 한국기업들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지에 진출한 것도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과연 아시아는 한국기업들 돈

벌게 해주는 곳 이상의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지, 우리 정부나 기업, 시민단체는 과연 식민지, 독재의 경험을 했던 동료의 입장에서 일본, 미국과는 다른 ‘아시아론’을 갖고 있는지 다시 물어 본다. 얼마 전 타계한 싱가포르의 리관유 수상과 김대중 전 대통령 사이의 아시아 민주주의 관련 토론이 우리가 나름대로 의견을 제기했던 아시아론의 전부가 아닐까? 남북한 분단과 전쟁은 우리의 시선을 오직 미국의 시선으로만 아시아를 보게 만들었고, 북한에 적대하느라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냉전적 사이에 머물게 한 것은 아닌가? 며칠 전 베트남당 당시 한국군에게 학살당한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연영사를 하러 했지만, 참전자들은 행사 자체를 무산시켰다. 자신이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저지른 잘못된 과거를 부인하는 일본의 전철을 따라가는 것 같아서 안타가웠다. 그래도 일본에는 식견 있는 아시아 및 한국 전문가, 한국의 민주화나 한·일 과거정산을 위해 꾸준히 일해 온 수많은 개인과 단체가 있어서 한국과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국이 품격을 갖춘 나라가 되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춘 특·특

경험을 통해 현실 마주하고 책임감 갖자



이 가 을
광주대학교 유아교육과 4학년

요즘 들어 직업을 묻거나, 전공이 뭐냐고 물었을 때 유아교육과라고 답하면 열에 아홉은 “나는 나중에 애들 때리지 마”라는 말을 듣게 된다. 아동학대 소식이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오기 때문이다. 솔직히 전에는 유치원교사라고 하면 상냥하고 웃는 얼굴에 아이들과의 행복한 모습이 떠오르는, 여자들의 대표적인 직업이라고 해도 무방했다. 하지만 유아교육과를 다니면서 내가 생각했던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실감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명절에 유치원 교사인 친척분이 이 일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었다.

수업을 듣다 보면 과목은 다르지만 교수님들께서 종종 얘기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른적인 지식 공부도 중요하지만 실무능력도 중요한 만큼 성적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물론 학생 본연의 일에 성실히 임한다는 것이 전제이기는 하나 그만큼 중요시 되는 것은 올바른 인성과 유치원교사라는 직업에 따른 책임감이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아이들에게 있어 성장 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영유아기는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유치원교사로서 책임감이 막중하다. 또한 다양한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 다방면에서 활약해야 한다. 아이들을 돌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쓰는 아이들의 개별적인 관찰일지부터 특이사항 체크, 수업준비, 교실 환경정리 및 청소, 학부모와의 관계까지 신경 써야 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눈 깜짝할 새에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아이들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어서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유치원교사는 등에도 눈이 달려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마냥 웃을 수만은 없

는 이야기다. 전공이나 직업을 선택하기에 앞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졸업하기까지 공식적으로는 교육봉사와 학교현장실습을 통해 유치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시연을 했을 때에는 준비해간 수업에 따라 친구들이 호응해주고 대답해 주기 때문에 수월했지만 막상 아이들을 상대로 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생각 없이 내뱉은 말과 행동들이 아이들이 따라하고, 교사가 어떤 웃을 입었는지 어떻게 머리모양이 바뀌었는지까지 아이들이 금세 알아차리는 모습을 볼 때면 새삼스레 일의 막중함과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니 나로서는 아이들의 관찰력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미리 겁을 먹는 것은 좋지 않지만 준비되지 않은 채 현실의 벽에 맞닥뜨렸을 때는 더 무너지기 쉽다고 생각한다. 시간표를 짜 때 여기저기서 들은 선배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든 힘든 과목들은 피해보려고 하는

게 대다수의 학생들의 모습인데 실전에 앞서 다양한 경험은 우리에게 득이 될 일이지 절대 실이 될 일은 아니다. 수업외에 떠오른 아동학대, 비단 알려진 것만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무엇이 그 선생님에게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해보았을 때, 이미 그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책임감을 잃어버린 채 직업적인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본다. 물론 어떠한 변명에도 용서받을 수 없는 짓임은 분명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진심어린 사람으로 아이들을 대하며 성실히 일하고 있을 유치원 교사 분들마저 의심받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 대학생들도 지금 당장의 힘든 일을 모면하고자 현실을 피하기보다는, 정춘을 낭비하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쓴맛도 맛보고 보람도 느끼면서 스스로 자신의 일에 대한 감사함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社說

세월호 참사 1년...아직도 달라진 게 없다니

4월16일, 어찌 이날을 잊을 수 있을까. 이틀 후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1년이 된다. 추모 행렬은 다시 진도로, 진도로 물러드는데 팽목항은 아직도 숨죽여 울고 있다. 충격과 슬픔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질 것이라고 눈물로 약속했었다. 하지만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아직까지 길거리를 전전하고 ‘진상 규명’과 ‘선제안양’을 요구하며 삭발을 했다. 우리 사회의 적폐를 안고 침몰했던 세월호 참사 이후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우리 사회는 얼마만큼 더 나아졌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슬프게도 부정적이다. 광주·전남 지역 여객선 운항 실태만 봐도 그렇다. 본보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안전의식은 별로 나아진 게 없었다. 특히 세월호 침몰의 한 원인으로 지목받았던 부실한 화물 ‘고박’고정해서 묶는 것도 여전했다. 한 여객선의 경우 출항 초에는 차량

을 꼼꼼히 쟁겨 고박했지만 목적지에 도착하기 10~20분 전쯤엔 선원들이 벌써 1년이 된다. 추모 행렬은 다시 진도로, 진도로 물러드는데 팽목항은 아직도 숨죽여 울고 있다. 충격과 슬픔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질 것이라고 눈물로 약속했었다. 하지만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아직까지 길거리를 전전하고 ‘진상 규명’과 ‘선제안양’을 요구하며 삭발을 했다. 우리 사회의 적폐를 안고 침몰했던 세월호 참사 이후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우리 사회는 얼마만큼 더 나아졌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슬프게도 부정적이다. 광주·전남 지역 여객선 운항 실태만 봐도 그렇다. 본보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안전의식은 별로 나아진 게 없었다. 특히 세월호 침몰의 한 원인으로 지목받았던 부실한 화물 ‘고박’고정해서 묶는 것도 여전했다. 한 여객선의 경우 출항 초에는 차량

대형 참사 막은 나주 요양병원 안전의식

나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밤중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소화시설이 작동하고, 직원들이 환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 화를 모면할 수 있었다. 12일 밤 11시 49분께 나주시 노안면 모 요양병원 4층 직원 휴게실 내 간이침대 전기장판에서 불이 났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며 순식간에 진화됐다고 한다. 불이 나자 열 감지기가 작동하며 비상경보음이 울렸고, 병원 야간 근무자 22명은 임원 중인 노인 217명을 신속하게 대피시켰다. 직원들은 설치된 소화기를 이용, 자체 진화에 나서 휴게실 간이침대 일부가 불에 탄 것 외에는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이 병원은 연 면적 400㎡ 이상의 건물이 아니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할 필요가 없는데도 스프링클러를 자체적으로 설치했다고 한다. 병원 측은 안전의식이 대형 참사를 막은 셈이다.

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와는 극히 대조된다. 당시 장성 요양병원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면서도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화를 키웠다. 요양병원에는 병실에 비치해야 할 휴대용 소화기 11개 가운데 8개가 잠긴 캐비닛에 보관돼 있었으며 화재 경보도 울리지 않았다. 소방시설이 무용지물이었다. 비상구로 가는 통로는 아예 문이 잠겨 있었다. 당직 근무자는 본관 2층과 별관까지 2명뿐이었고 불이 나자 간호조무사 혼자 불을 끄려다 연기에 질식사해 숨졌다. 병원 측의 안전 무방비가 21명 사망에, 8명 부상이라는 참사를 불렀다.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 그런 면에서 이번 나주 요양병원 화재 대처는 찬사를 받을 만하다. 안전의식을 통해 귀중한 생명을 구한 이 요양병원을 우리 모두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대학 친구 H는 독립영화 감독이다.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쓰고 월급으로 제작비를 충당해 휴가에 맞춰 촬영을 했다. 어렵사리 만든 그의 작품들은 호평을 받아 해외 영화제에 출품되기도 했다. 이때 영화사의 ‘입봉’제의도 들어왔는데 H는 자신의 시나리오로 데뷔하겠다고 거절했다. 이후 H는 40대 중반 나이에 영화 연출에 전념하기 위해 사표를 썼고 창작 시나리오로 데뷔를 준비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H의 영화 작업은 취소됐고 소식도 끊겼다.

인 스토리 일색인 블록 버스트 영화에 비해 저예산에 무명 배우, 생활 속 이야기 가는 소박하면서도 담백하다. 우리나라 영화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스타일의 저예산 영화제작이 활성화돼야 한다. 이를 통해 재능있는 젊은 감독을 발굴해 지원하는 제작시스템 구축도 아쉽다. 지난 9일 열린 ‘제2회 들꽃 영화상’ 시상식에서 이수진 감독의 영화 ‘한공구’의 인재홍이, 여우 주연상은 ‘한공구’의 천우희가 받았다. 시나리오 상은 ‘도야’를 연출한 여수 출신 정주리 감독이 차지했다.

들꽃영화상

독립영화는 기존 상업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창작자의 의도에 따라 제작한 저예산 영화를 의미한다. 아무리 잘 만든 작품도 대자본이 장악한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상영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이다. 또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탓에 관객들의 선택을 받기도 어렵다. 그 래서 전가를 알아낸 일부 관객들의 입소문 급급효과가 크다. 독립영화의 묘미는 ‘창의성’과 ‘다양성’이다. 막대한 제작 비용과 호화 출연진, 화려한 CG(컴퓨터 그래픽), 자극적

‘들꽃 영화상’은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의 한국 저예산·독립영화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영화상으로, 한국영화 저예산 영화를 의미한다. 아무리 잘 만든 작품도 대자본이 장악한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상영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이다. 또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탓에 관객들의 선택을 받기도 어렵다. 그 래서 전가를 알아낸 일부 관객들의 입소문 급급효과가 크다. 독립영화의 묘미는 ‘창의성’과 ‘다양성’이다. 막대한 제작 비용과 호화 출연진, 화려한 CG(컴퓨터 그래픽), 자극적

기 고

건강보험 혜택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채 임 신
광주시 조산사협회 회장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수적이라는 뜨거운 논란 가운데 해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약제 범위가 확대된 건강보험 보장성(전체 진료비 중 공단부담률)이 강화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실제 이 사실이다. 건강보험 혜택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했다고 하지만 혜택이 늘어났다는 것을 느낄 수 없으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병원 진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적용받는 급여 부분과 적용받지 못하는 비급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비급여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해마다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도 국민이 그것을 피부로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다. 그래서 지난해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을 62.5%(2012년 기준)에서 2018년까지 68%로의 확대 방안을 마련했고, 그 중 1인당 고액진료비 50위 이내의 질환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평균 80%대로 개선하겠다고 하니 여간 반갑고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모든 국민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길 간절히 바라는 바일 것이다. 생애주기별로 필수 의료 보장, 고액 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관리체계 도입,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하는 방향으로 2014년에서 2018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이 중에서 국정과제로 발표된 4대 중점질환 보장성 강화는 이미 작년부터 추진 중에 있다. 그 중에서 금년부터 추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을 살펴보자. 우선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이어 계속해서 청성뇌간이식술, 수술을 하지 않는 심장·뇌혈관질환, 고비용 검사·약제 등 200여 항목에 추가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입원, 외래 모두 5~10%인 산정특례제도를 희귀난치질환까지 확대하고 포괄적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부담을 과중하게 했던 선택 진료비(일병 투진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을 크게 개선하게 된다. 선택진료 의사지정을 현재 80%에서 약 65%로 축소하고,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확보율을 현재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며, 간병 부담 감소를 위해 간병을 입원서비스에 포함시켜 건강보험 수가로 적용하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 사업을 지방 중소병원중심으로 확대 추진한다. 작년에도 이미 선택진료 환자 부담을 35%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4·5인 병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28개 병원에서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비급여를 축소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는 그동안 75세 이

상 어르신들에게만 지원해 왔던 임플란트와 틀니를 70세 이상 어르신들까지, 내년부터는 65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희귀질환약제는 제약사 신청가격이 ‘A7 국 가(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등) 최저 약가’ 이하 수준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경제성 평가 절차를 생략, 바로 약가 협상을 거쳐 종전보다 빠르게 보험 등재함으로써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도 크게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금년 2월부터는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사람은 금연치료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12주 동안 6회 이내의 금연 상담과 금연 보조제, 치료제 등 투약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실제적인 항목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이로 인한 진료비 부담이 낮아지고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기대한다. 더불어 모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돼 국민의 건강 수준이 향상되고 의료보장의 계층별, 연령별, 지역별 형평성도 함께 제고되기를 희망해본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 | | | |
|--|----------------|---------------------------------|---------------------|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 |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일)간 |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 |
|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인내 (대표 FAX 222-4918) | 경 제 부 2200-632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
| 편집부 2200-649 | 문화생활부 2200-661 | <F A X 222-8005> | <F A X 222-0195> |
| 정치부 2200-642 | 여론매체부 2200-696 | 광고매케팅국 227-9600 | 독자서비스국 2200-551 |
| 대표 FAX 222-4918) | 체 육 부 2200-697 | <F A X 227-9500> | <F A X 227-9500> |
| 사 회 부 2200-663 | 사 진 부 2200-693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대표 FAX 222-4267) | 조 사 부 2200-571 | 프로젝트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